

전북 순창군 광주목장

※ 본고는 협회가 2008년도 제작한 우수목장사례집에서 발췌된 바, 게재된 내용이 현재의 목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목장의 현황 및 변천사

목장현황

- 사육규모 : 110두(착유우 35두)
- 납유처 및 납유량 : 낙농진흥회 960kg
- 체세포 평균 : 평균 1등급
- 세균수 : 1A등급
- 유지방 : 4.1

목장변천사

- 1982 젖소 2마리로 전남화순 동면에서 낙농업시작
- 1985 화순 북면으로 이주(12마리)
- 1991 전북 순창으로 이주(60여두)
- 1995 현 축사 신축(약 650평)
- 2007 축사 증축(약 500평)
- '늘목 41호' 서울우유 생애누적산유량 2위 수상(12만68kg, 착유일수 3,375일)



순창군은... 고추장을 비롯해 장류로 유명한 고장으로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로 형성 되어 있으며 섬진강, 적성강과 경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어 풍부한 수량과 깨끗하고 맑은 수질을 자랑하고 풍요로운 농경지는 비옥하고 한해가 없다.

순창군의 면적은 495.76km²로 1개읍 10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1만3천 251세대, 3만2천243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 전체면적 중 임야가 67%, 농경지 24%, 기타 9%로 산간부에 속하며, 논·밭의 구성 비율은 7:3으로 논이 비교적 많다.

순창군의 낙농기는 17호이며 1천54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고 원유생산량은 5천594톤이다.

1. 광주목장은

광주목장은 고추장으로도 유명한 순창에 위치해 있으며 35마리의 착유우를 가진 우리나라 여느 목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광주목장은 류준열 대표와 부인 이진숙씨의 성실함이 목장 곳곳에 그대로 배어 있어 먼지하나 쌓일 틈 없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목장은 지난 1982년 화순에서 목장을 시

작했지만 1995년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순창으로 이전해 축사를 신축하고 목장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환경문제와 민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남들도 다 인정할 만큼 깨끗한 농장으로 일궈냈다.

2. 목장 환경미화

광주목장을 들어서면 진입로에서부터 양옆으

〈농가 및 경지면적〉

구분	농가				경지면적		
	농가수	농업인구			합계	논	밭
		계	남	여			
2007	6,537	14,400	6,634	7,766	10,176	7,386	2,790

〈가축 사육현황〉

구분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사육호수	사육두수	사육호수	사육두수	사육호수	사육호수	사육호수	사육호수
2006	16	1,177	1,298	14,904	43	24,919	533	1,831,769
2007	17	1,054	1,272	16,046	41	22,289	200	1,759,167

〈식량작물 생산현황〉

구분	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ha)	생산량 (M/T)	면적 (ha)	생산량 (M/T)	면적 (ha)	생산량 (M/T)	면적 (ha)	생산량 (M/T)	면적 (ha)	생산량 (M/T)
2007	6,322	32,824	69	304	8	23	616	1,209	46	762



목장 옆에 있는 조사료포에서 옥수수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류 대표는 조사료만큼은 자급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4천여평의 자가조사료포와 1만2천평의 입대조사료포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로 사시사철에 피는 꽃나무는 물론 소나무까지 심어져 있다.

모든 나무들은 류준열 대표가 10여 전부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몇천원짜리 묘목을 사서 심고 산에 핀 들꽃을 캐다가 심어놓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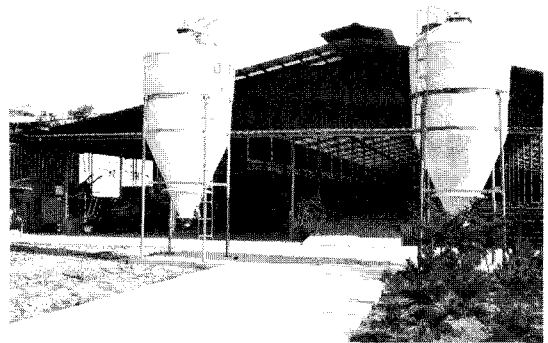
“나무야 얻어오고 들은 주어야 쌓으면 된다”는 류 대표도 “부지런하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깨끗한 조경을 꾸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류 대표는 “목장부지가 좁아서 공간이 없어서 조경을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진숙씨는 정리정돈은 습관적으로 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기 위해 축사 앞에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정원을 조성해 놨다.



목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다. 류 대표 부부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축사 내외부 청소를 한다고 한다.

살림집 앞에는 손님 맛을 평상을 만들어 놓고 목장일 틈틈이 화분까지 돌보고 있다.

이 씨는 “일반인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그림 같은 목장을 구축하기란 불가능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장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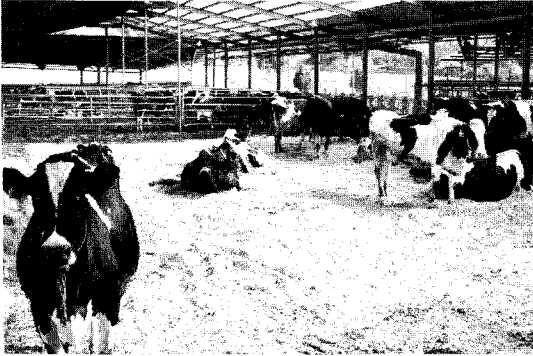
또 목장 옆의 밭에서는 파, 마늘, 콩 등 농작물을 심어 수확시기가 되면 목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류준열, 이진숙 부부는 “목장규모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목장에 있는 것이 좋아 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항상 꽃이며 채소를 가꾸는 낙농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며 목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축사관리

그러나 무엇보다 류준열 대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소’들이다.

광주목장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신선한 사료공급을 위해 그날 급여할 사료는 그날 배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아침에 육성우와 착유우에 급여할 사료를 배합한다. 착유 후 착유실 내외부를 청소하고 나서야 아침일과를 마친다.



깨끗한 환경에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착유우의 모습



어느 가정집 부엌만큼 깨끗한 냉각실 바닥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특히 류 대표는 목장 내외부 청소는 365일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뿐만 아니라 젖소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가장 편하게 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류 대표가 소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철칙 중에 하나는 치료가 아닌 예방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포도당과 비타민제를 투여하고 송아지가 처음 나면 개체관리에 들어가고 한 달이 지나면 공동 관리에 들어간다. 냉각실안에 젖소현황판을 보면 누구라도 한눈에 개체별로 분만일과 수정일, 분만예정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체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목장 한 편에 마련해둔 저온저장고는 송아지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납유를 못하는 우유를 보관해 송아지들에게 급여하고 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광주목장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철저히 수조청소를 해 주고 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수조청소는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해줄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류 대표의 말이다.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를 위해서는 우사 초입에 보호막을 길게 쳐서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고 사료급여기가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

틱 제품으로 설치해 놨다.

또 사료섭취량을 높이기 위해 우사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했으며 처마 밑에 판자를 설치해 우사내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비가림 시설을 갖춰 사료오염 방지와 비가 새면 운동장이 질퍽거리기 때문에 한결 더 주의해 설계했다.

4. 유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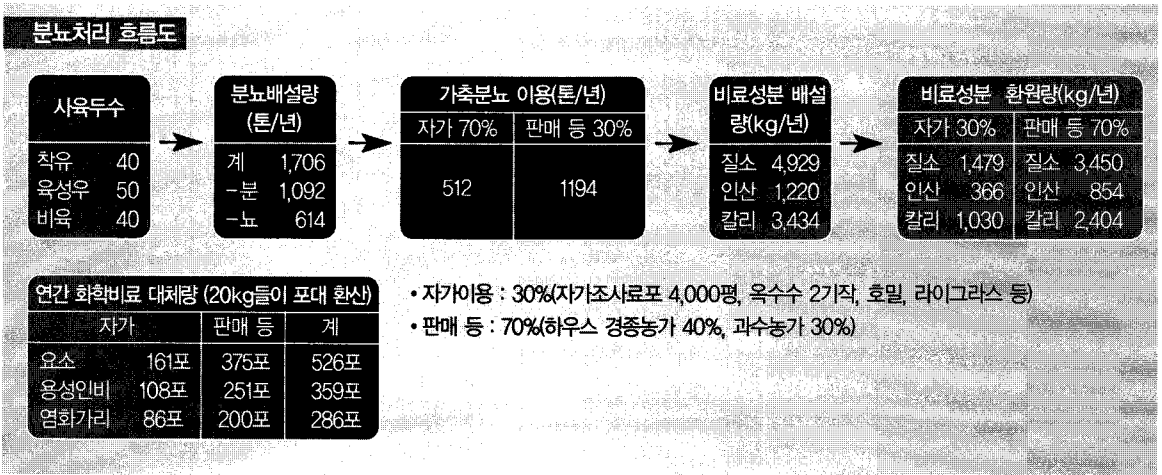
이와 함께 목장을 둘러보면 류 대표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착유실안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스듬한 경사가 있으며 양면 배수로를 설치해 세척수를 정화조로 흘려보낸다.

또 착유실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 파이프라인 등은 모두 스테인리스로 설치했다.

류 대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뺏속까지 이상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한 그에 맞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착유시 머리부터 다리까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다. 심지어는 분변까지 관찰을 하는데 이때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5. 조사료 자급 및 이용실태

류 대표는 가능한 국산 조사료를 이용해 사육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4천 여평의 자가조사료포와 1만2천평의 임대조사료 포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최근 담리작 후작으로 임대조사료포에 파종을 끝냈으며 옥수수과 호맥을 3모작으로 경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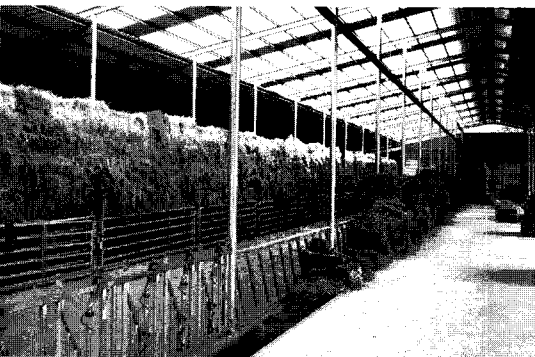
또 인근 경종농가에서 벧짚을 확보해 조사료 창고와 임시로 마련한 비닐하우스에 가득 채워 놓고 올 겨울을 보낼 채비도 마쳤다.

6. 분뇨 처리 및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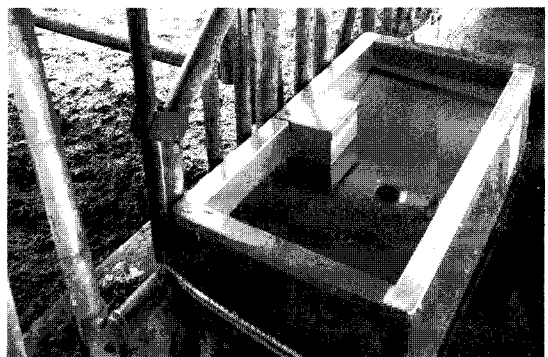
목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자가조사료포에 30%를 살포하고 주변 과수농가에 40%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경종농가에 공급해 왕겨와 교환하고 있다.

특히 퇴비사에는 일주일치 분뇨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퇴비 적체를 피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가 번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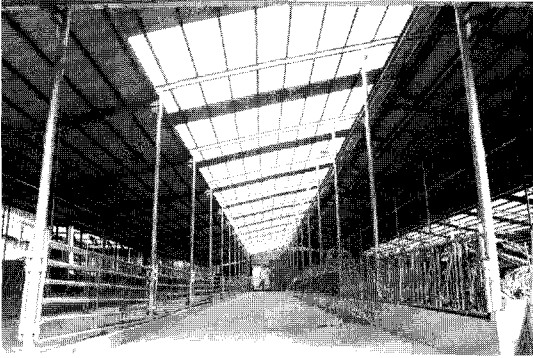
류 대표는 “분뇨의 적기 처리로 사육환경이 쾌적해지면서 젖소들도 한결 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사료만큼은 자급해야 한다는 의지로 빈 축사는 물론 조사료 창고, 임시로 마련한 비닐하우스 등에 벧짚과 조사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급수통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자연채광이 잘 돼 축사 내부가 환하고 깨끗하다.



부인 이진숙씨는 순창낙우회 여성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역 축제에서 우수소비촉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7. 지역사회와의 조화

이처럼 목장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보면 하루 해가 짧아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대외활동까지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게 류 대표의 말이다.

또 대외활동을 자주하면 목장 일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지만 부인 이진숙씨는 순창낙우회 여성분과위원장을 맡아 우수소비활동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목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항상 손수 만든 요구르트를 대접하며 우수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8. 향후계획

류 대표는 앞으로 광주목장을 후계자에게 물려줘 대를 잇는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를 위해 류 대표는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축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류 대표는 “수의학과 졸업반인 조카와 도시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이번에 신축한 축사에 소를 채우고 함께 목장을 경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0년간 목장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 오늘도 목장 내외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류 대표는 “지금도 목장을 단순히 소가 있는

공간이고 생계수단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인근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가끔 식사라도 하고 꽃나뭇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정겨운 고향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목장의 가치 또한 단순히 우유만 생산하는 곳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류 대표의 말에서 그의 깨끗한 목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

선정위원단의 현지심사평

- 우사, 착유실, 젖소 위생 등 모두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목장 내외부의 정리정돈이 아주 잘되어 있다.
- 한눈에도 평소 깨끗한 목장임을 알 수 있다.
- 해충이나 냄새가 거의 없다.
- 분뇨 처리 및 퇴비사 관리도 양호하며 분뇨는 퇴비사에서 15일 숙성과정을 거쳐 경종농가에 공급한다.
- 퇴비를 활용하여 옥수수, 호밀을 3모작 한다.
-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내놓을 정도로 우수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